

제 4 장: 리더십으로 행해나갈 수 있도록 부으시는 은혜 (스 3:1-10) (Grace to Walk in Leadership)

I. 도입

- A. 스가랴의 4 번째, 5 번째 환상 (스 3-4 장)은 여덟개의 모든 환상 중에서 특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기름부으셔서, 그들이 처음 세 개의 환상에도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스 1-2 장) 부르심과 축복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보여준다.
1. 처음 세 가지 환상들에서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친히 거하심으로 그분의 열심과 자비를 나타내시며, 성전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며,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차지하시며,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순종하도록 이끄실 것을 약속하신다 (1:16; 2:10-12).
 2. 여기서 생기게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같이 연약하고 최악된 백성이 이러한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환상들을 통해 그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시며 답을 하신다 (스 3-4 장).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최악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
- B. 이 두 환상은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들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스 3 장)와 총독인 **스룹바벨** (스 4 장) 이다. 한 나라 안에서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영적 상태와 경험은 그들이 인도하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경험에 영향을 준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두 핵심 지도자들을 환상으로 목격했다 (스 3-4 장). 이 환상은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다 (출 19:6; 사 61:6). 이 두 환상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 두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C.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언급하신다. 첫째는 **우리의 죄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스 3 장). 둘째 장애물은 **부족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 (스 4 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 D. 주님은 스가랴 3 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신다** (3:3-7). 스가랴 4 장에서는 **그들의 일이 작고 어려울 때 초차도 그들의 일을 도우시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 (4:6-10). 다시 말해서, 주님은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전심과 성실함을 원하신다.
- E. 스가랴 3-4 장의 메시지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다. 이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이며 (스 3 장), 우리의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스 4 장).

- F.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째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를 한다는 거짓말**이다 (3:1-5). 그 다음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다는 거짓말**이다 (4:6-9).
- G.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속 3 장). 주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우리의 작고 수고스런 섬김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속 4 장).

II. 네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심 (3:1-5)

- A. **요약:** 하늘의 장면에서 (3:1-2), 스가랴는 여호와와 사자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았다. 이때 사단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참소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다 (3:4). 여호수아는 완전히 정결케 되었으며, 그리고 주를 향해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3:7).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는 예표가 되었다 (3:8-9). 모든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의 넘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3:10).
- B. 이 환상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의 장면 (3:1-2), 상징적 행동 (3:3-5), 전심을 위한 권면 (3:6-7),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구원에 대한 계시 (3:8-10).
- C.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대표하였다 (레 16:1-10). 여호수아의 죄가 제거되었듯이, 이스라엘과 그 땅의 죄도 제거될 것이다 (3:9; 13:1-2).
- D.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III. 하늘의 장면 (3:1-2)

- A. 사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님께 참소했다 (3:4).
¹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 [NAS, NIV: 참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속 3:1)
 1.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다 (6:11).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민족임을 나타내었다. 그는 약 20 년 전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 **사단:** 사단은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위해 그의 옆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사단은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 라는 뜻이다.
 3. **참소:** ‘대적’ 이라고 하는 단어는 NAS 나 NIV 성경에서 ‘참소’ 라고 번역되어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참소하고 있다 (계 12:10). 사단은 참소만 할 수 있고 정죄(선고를 내리는 일)는 할 수 없다.
¹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 12:10)

제 4 장: 리더십으로 행해나갈 수 있도록 부으시는 은혜

4. **여호와와의 사자:** 대부분의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여호와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 즉 삼위일체 중 두번째 위격이라고 믿는다. 스가랴는 그날 밤 첫 번째 환상에서 그분을 보았다(1:11-12). 그 천사는 “여호와”라고 불리운다 (3:2).
5. **앞에 섰고:** 이것은 제사장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분 ‘앞에 서서’ 섬기고 사역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레위지파 (신 10:8-9), 대제사장 (삿 20:28), 엘리야 (왕상 17:1), 엘리사 (왕하 3:14) 등이다.
- B. 주님은 여호수아에 대한 사단의 참소를 받아 들이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사단을 두 차례 책망하셨다 (3:2).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단을 책망하셨고,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조각과 같다고 표현하셨다.
- 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속 3:2)**
1. **너를 책망하노라:** 주께서는 사단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사단의 참소가 그릇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은혜로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사단이 우리들을 참소하며 대적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우리도 이를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이와 동일한 진리를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
2.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증보는 사단의 참소보다 더욱 강하다 (롬 8:34).
- ³³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³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³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3-39)**
3.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대변자)로 서 계신다.
- ¹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²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 (요일 2:1-2)**
- C. 이와 동시에 사단은 여호수아를 영적인 영역에서도 참소하고 있었다. 페르시아 출신 사마리아 총독인 닷드내 (Tattenai) 라도 여호수아가 성전을 세울 권리가 없다며 (스 5:1-17) 그를 참소하였다 (스 5:3). 닷드내는 유브라데에서 바다에 이르는 강 건너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 ¹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 ²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 ³ 그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 ...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⁷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⁸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 ¹⁷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뻐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스 5:1-17)**

- D. 그리고 주께서 하늘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했던 사단을 책망하셨듯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도 여호수아를 괴롭게 했던 닷드내를 책망하였고, 닷드내로 하여금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것을 명령했다 (스 6:6-12).
- ⁶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 ⁷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 ⁸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¹²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스 6:6-12)
- E.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또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택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자신이 죄악되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임을 보이시며, 사단의 참소에 대해 직접 응답하신다.
- F.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주님은 여호수아(그리고 이스라엘)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조각과 같다고 사단에게 설명하신다 (3:2).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생활이라는 방금 불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불에서 금방 꺼낸 불이 붙은 나무 조각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구원받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의 심판의 불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전멸될 뻔 했는데, AD 70 년에도 그랬다. 그러한 일은 대 환란 때에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속 13:8; 렘 30:7; 계 12:13-17),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불 속에서 건져낸 나뭇조각같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건져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멸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1. NIV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황급히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강조하는 모습은 위험한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도망나온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
 2. 아모스 선지자도 동일한 관용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주권적인 훈계를 받아 불에 반쯤 타고 건짐받은 나무 조각과 같다고 기록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건짐받은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향불이 하늘에서 내려 멸망되던 상황에 비교하신다.
¹¹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 (암 4:11)
 3. 여기서의 메시지는 주께서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전멸하지 않도록 항상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자신들을 택하셨고, 자신들이 미래에 받는 어떤 불로부터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비하심으로 간섭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4. 주님은 이스라엘이 구출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시기를 강조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불을 받아야 마땅했고 거의 전멸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풍성하신 자비로 그들을 구해내셨다. 주님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단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다.** 주님은 시온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불에 들어가기에 마땅했으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놀라운 자비로 간섭하셨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개입해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받아 마땅한 심판의 “거의 충만함에 가까운 정도를” 경험하게 하셨다.

5.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붙는 가운데서 뺀 나무조각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만일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을 받았다면, 그들 중 아무도 리더십으로 사용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부드럽게 다루신다 (미 7:18; 시 18:35). 만일 예수님께서 그 인애하심으로 여호수아를 구출하셨듯이 우리를 구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죄와 고난들로 인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그분을 섬기도록 하실 때는, 그들이 아직도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가난하며, 아직 온전치 못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 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거듭날 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매일 매일 계속해서 은혜로 씻기신다.
- G. 여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도바울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롬 11:1). 우리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치 않으셨음을 생각해보면,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IV.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 상징적인 행동 (3:3-5)

- A.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제거되고 새로운 옷이 그에게 주어진다 (3:3-5). 주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셨고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3:4).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꾸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말한다.

³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⁴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추가 한글 KJV: 보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⁵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 3:3-5).

1.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이 나타내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죄를 범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 또한 범죄한 이들이며, 우리에게는 무죄라 주장할 아무런 소망이 없다.
2.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주님은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셨다 (3:4c).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그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은 더러운 옷에 비교된다 (사 64:6).
3.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으며, 제사장의 옷을 입음을 상징한다 (출 28:8-9; 레 8:7-9; 사 61:10; 고후 5:17, 21). 이 구절에는 복음의 은혜의 진리가 드러나 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혔음을 말씀하신다 (눅 15:22).

²¹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¹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사 61:10).

4. **보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3:4).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보아야” 하고, 또 이 진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
5. **중보기도:** 스가랴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3:5). 스가랴의 중보적 호소는 받아들여졌다. 아마도 주께서는 머리에 관을 씌워놓지 않음으로 스가랴가 중보를 통해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절에서 “내가 말하되” 라는 기록은 스가랴가 이 환상 가운데 하늘 회의 자리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⁵**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속 3:5)**
6. **관:** 여기서 나오는 관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복귀됨을 상징한다 (출 19:6).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은혜를 얻었음을 보이신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본래의 부르심대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실 것이다 (출 19:6; 사 61:6).

V. 전심을 위한 권면(3:6-7)

- A. 주님은 여호수아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도록 권유하셨다 (3:6-7). 이것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타당한 반응이다. 주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권고하셨다 (경건한 성품과 근면한 섬김).

⁶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⁷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한글 KJV: 내 분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한글 KJV: 심판도 하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속 3:6-7)

1. **증언하여(권유하여):** 이 단어는 ‘진지하게 경고하다’ 라는 뜻이다.
2. **내 도를 행하며:** 여호수아는 경건한 성품으로 살아야 했다.
3. **내 규례를 지키면:** 그는 주께서 주신 과제들에 충실함으로서 근면한 섬김을 드리며 살아야 했다.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의 성소를 지키며, 이와 관련된 제사장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¹⁵제사장들은 ...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 [동물의 제사] 를 내게 드릴지니라 (겔 44:15)
4. “내 규례를 지키라 (keep My command)” 를 KJV 이나 RSV 성경에서는 “분부를 다하라 (keep the charge)”고 번역되어 있고 NAS 성경에서는 “내 섬김을 수행하라 (perform My service)” 라고 번역함으로 그의 제사장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7 절 하반절에 그가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의 책임을 말한다.
5. 하나님의 명령 혹은 책임을 지키라는 권고는,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수행하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아무리 힘들고 반대가 강해도 전쟁시

최전방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군사임무처럼 보기보다, 힘들면 그만둘 수 있는 자원하는 일 정도로 여긴다.

6. 그는 “보라” (3:4), “행하며 지키라” (3:7), 그리고 “들을” 것에 대한 권고받았다 (3:8).

B. 주님은 여호수아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에 세 가지 방법으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3:7b).
7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한글 KJV: 심판도 하고] 내 딸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속 3:7b)

1.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한글 KJV: 심판도 하고): 이는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심판하거나 리더십을 갖는 것을 말한다. 충성된 섬김은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2. 내 딸을 지킬 것이며: 주님의 딸 혹은 성전에서 (혹은 기도의 집에서) 리더십을 갖게 됨.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계 3:12). 이는 천년 왕국에서 권세의 위치를 받게 됨을 말한다.
3.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은 하나님 앞에서 있던 천사들을 말한다 (3:4). 그리고 NAS 성경은, “내가 그에게 지금 네 앞에서 있는 자들과 자유롭게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과, 천사들의 영역과 하늘의 회의 참여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4.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은 열린 하늘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 1:51).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1:51).

C. 스가랴 3 장에 나오는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 가운데 전심의 순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 없이 주어졌다 (3:4).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이가 있다 (3:7).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의의 선물을 거저 주셨지만, 그가 전심의 길을 가는 것은 그가 선택하도록 하셨다.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리더십 아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VI.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구원하심 (3:8-10)

A. 이 환상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표로서 서 있다 (3:8). 그들은 장차오실 메시아와 그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언적인 징표이다.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 (속 3:8-9a)

1. **예표:** 이들은 “씩” 그리고 “돌”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경이로운, 중요한 예표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 여호수아와 그의 리더십 그룹은 제사장들이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지만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3. 그들은 전심과 성실함으로 (3:7)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며 그들과 같이 제사장처럼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이들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증거”였다.
4. 이들은 제사장직과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그들은 장차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징표였다. 그들이 충실한 제사장들로 존재했던 것만도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은총을 주고 계시며, 앞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징표가 되었다 (3:9).
5.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언적인 그림 혹은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였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일이 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들어야” 했다.

B.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씩’ 과 ‘돌’을 봤다 (3:8-9). 돌은 무계를 버티는 역할을 하며, 썩은 우리가 섭취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 사도바울은 건물과 식물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묘사했다 (고전 3:9; 엡 2:19-22; 3:17).

⁸내가 내 종 썩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⁹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속 3:8-9)

1. **씩:** 메시아를 상징하는 주님의 썩은 예수님의 영광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 (사 4:2; 11:1; 렘 23:5; 33:15; 속 3:8; 6:12).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백성들이 작은 가지들 그분께 접목됨으로 확장되고 가지가 뺏어나가게 된다 (요 15:4-5).
2. **돌:** 스가랴는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돌을 바라보며 이를 이해해야 했다 (3:9).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시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의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시기도 했다 (마 21:42).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다 (엡 2:20-22; 벰전 2:9). 돌 혹은 반석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상징한다 (신 32:4; 15, 18; 삼하 22:2; 시 18:2; 31:3; 62:7; 89:26; 94:22; 95:1; 118:22; 사 8:13-15; 17:10; 28:16; 단 2:35, 45; 속 3:9; 10:4; 마 16:18; 21:42; 롬 9:33; 고전 10:4; 엡 2:20; 벰전 2:6-8).
3. **일곱 눈:** 돌 위에는 일곱 눈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전지(全知)하심을 상징한다 (계 5:6).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다. 스가랴 4:10 절에서 우리는 돌 위에 있는 일곱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4.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과 관련된 선언을 그 돌에 새기실 것이다 (3:9). 어떤 글이 새겨 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고대 세계에서는 돌 위에 글을 새김으로, 왕의 위대함과 중요한 행사 등을 기념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이 언급되기에, 여기에 새겨지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5. **죄악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 땅의 죄악은 단 하루에 제거될 것이다 (3:9). 예수님께서서는 단 하루에 십자가 상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3:9, 12:10-13:2; 롬 11:26).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루에 받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하루만에 구원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에 대한 징표와 보장이 된다.

- C.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번영과 안전함을 누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10).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는 것은 개개인이 번영하게 될 것을 나타낸다. 이 장면은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개개인들이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으로 초대하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 스가랴는 이 내용을 더 발전시킨다 (8:4-5).

¹⁰ 그 날에 ... 너희가 각각 (표준새번역: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속 3:10)

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 ⁵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속 8:4-5)